

In Hebrews chapter 10, the writer encourages God's people to persevere in faith. We read in Hebrews 10:31 these words, ***It is a dread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Yet we're assured that we can approach God with confidence. Note 10:19,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In other words, the Lord Jesu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has made it possible for us to come with confidence before God.

At the same time, we must recognise that God is a jealous God. Thus, just as He promises to love us and to bless us, He also promises to discipline His people. In Hebrews 10:30b, quoting from Deuteronomy 32:36, the writer tells us ***"The Lord will judge his people."*** Later, in chapter 12 we read about the Lord's discipline. We'll note 12:6a, ***"The Lord disciplines those he loves..."***

This is the hardest thing for us to understand. Why would God want to discipline His people? It seems so strange that God would discipline those whom He loves. But God's discipline shows that His love is real. Love without justice, without discipline, is weak. Again, we read in Hebrews 12:10, ***Our fathers disciplined us for a little while as they thought best; but God disciplines us for our good, that we may share in his holiness.***

히브리서 10 장에서, 그 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버텨내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 31 절에서 이 말씀을 읽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10 19 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있게 나아갈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실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가 그의 백성을 연단시키실 것을 또한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32 36 절에서 인용된 히브리서 10 30 절 말씀은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12 장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나니..." (12 6).

이는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징계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사랑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 징계가 없는 사랑은 약합니다. 우리는 다시 히브리서 12 10 절에서 봅니다, "우리의 부모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God's discipline has a purpose, to lead us to holiness. It is just one means that God uses to conform us to His ways. In fact, God's discipline always has a purpose. In the end, His deeds will always bring glory to Him. Note Ephesians 1:11, God ***works out everything in conformity with the purpose of his will.*** Habakkuk didn't have this verse to help him understand God's purposes. It does, however, encourage us in our times of trial. He struggled to understand God's ways. Nevertheless, we can sympathise with him in his difficulties.

We read in 1 Peter 2:21b, ***Christ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Is that true? We Christians do suffer for our faith. But there is another possible outcome. Discipline or suffering could lead to bitterness and resentment. Let me put it to you as a question. What's your response when life deals you a hard blow? Or, you see others facing enormous, unsurmountable difficulties. What's your response to their trials?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길에 참여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행위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니까요. 에베소서 1:11 절을 주목해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나니".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할수 있는 것을 돕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험이 닥칠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어려움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 21 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인해 힘들음을 겪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한 결과가 있는데요, 징계나 고생이 반감이나 원한을 갖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고난이 닥칠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극복할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시련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Many years ago now, Ginny was in hospital feeling most unwell. Her doctor, who was an atheist, wondered what our God was doing. For, there was God’s child, suffering. Our atheist friend, though he was a good doctor, could not understand. His idea was that God’s children should not suffer. Even though he claimed that he’d read through the Bible, he couldn’t see God at work *in all things*.

I must admit that neither Ginny nor I could understand what was happening. But one thing we did know, God had a purpose in those events. There were lessons for us to learn from what we were going through. I’m not saying that God was punishing us, though that could be true. I don’t know that we even have all the answers now. But, in the face of the unknown, at the very least, God was teaching us to trust in Him. Similarly, God is teaching you the same lesson.

수년전에 제 아내 지니는 매우 상태가 안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인 의사는 우리의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무신론자인 친구는, 비록 그가 좋은 의사였음에도 그것을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샅샅이 읽어보았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나 지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해할수 없었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았던 한가지는 하나님은 모든일에 목적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일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답을 지금은 아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So, not all suffering is due to God’s discipline. From time to time we all have problems to overcome. Difficult decisions have to be made.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ose other times when you know that life is out of your control. Life takes an unexpected turn that throws you off balance. It was like that for Habakkuk.

Habakkuk had seen the wickedness of God’s people in Judah. He complained to God about it. Clearly, he’d been doing this for some time. Nothing happened. God was silent. Habakkuk 1:2, 3b ***How long, O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Why do you tolerate wrong?*** Habakkuk’s plea is for justice. He writes in 1:4, ***Justice never prevails... justice is perverted.*** We do much the same, don’t we? When things don’t go our way, we want justice.

Be careful when you ask God for justice. It is far better to plead for mercy. Perhaps it’s unfair to judge Habakkuk. But, isn’t that what he ought to have done? Instead, he cries out that justice be restored to the land. And then, in judgment upon the violence and strife in Judah, God sent the Babylonians to overrun Judah.

What are we saying when we cry out for justice? We’re saying that we’re better than those people who hurt us. We don’t deserve what’s happening. Judge them, not us! Punish them, God! Bring them down, so that we’ll be vindicated [= seen to be in the right], so that our goodness will shine among the wicked!

Can we talk to God like that? I don't think so! Do not cry out for justice. You may get it. And if God were to act towards us in justice, we could never stand before Him. Not one of us is good enough to stand in the presence of God's holiness, His perfection.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해야하거나, 한편으로는 삶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삶은 여러분이 발란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까지 하는, 기대치 않았던 전환을 겪게도 만듭니다. 하박국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불평합니다. 분명히 그는 그것을 얼마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박국 1:2, 3 절에서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때 까지이리까? 어찌하여 악을 참으십니까? 하박국의 간청은 정의였습니다. 그는 1:4 절에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급게 행하여짐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거의 똑같은 것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우리 식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를 정의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의를 구할 때, 조심하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편이 훨씬 낫을 것입니다. 하박국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가 마땅히 했어야 할일이 아닐까요? 대신에 그는 그 땅에 정의가 회복되기를 울부짖었고, 그런 다음 유다의 강포와 분쟁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지배하도록 보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을 때 우리는 무엇이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상처준 사람들 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그들을 심판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벌하소서! 그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가 죄 없게 되도록 (=좋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선함이 사악한 자들 가운데 빛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정의를 휘두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한명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벽함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he story is told of a mother who approached Napoleon seeking a pardon for her son. The emperor replied that the young man had committed a certain offense twice. Justice demanded death. "But I don't ask for justice," the mother explained. "I plead for mercy?"

"But your son does not deserve mercy?" Napoleon replied.
"Sir?" the woman cried, "It would not be mercy if he deserved it, and mercy is all I ask for?"
"Well, then?" the emperor said, "I will have mercy?" And he spared the woman's son.

Cry out for mercy, for yourself and for those who sin against you. Cry out to God that He will hear your prayer and restore you into a right relationship with Himself. In your trials of life, ask God what lessons you are to learn. What is God teaching you about Him? What is God teaching you about you, yourself?

Did I say that this is easy? Not at all! It's hard, very hard. At the same time I, for one, am thankful for Habakkuk. He doesn't try to cover up his problems with what has happened. And, he doesn't try to make out that he was in the right. In fact, when we come to chapter 2, he realizes that God *will* avenge His people.

한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그녀의 아들의 용서를 구하러 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황제는 그 젊은이가 어떤 위반을 두번이나 했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그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비를 구하러 온것입니다"라고 그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아들이 자비를 받을 만 하느냐?"라고 나폴레옹은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면서, "폐하, 그가 자비를 받을 만 했다면 제가 구하고 있는 것은

자비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라고 했고, 나폴레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비를 가지고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여인의 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자비를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련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물으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무엇을 여러분께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관해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쉽다고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박국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그의 문제점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그가 옳은 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2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갚으시는 것을 보게됩니다.

His first complaint was that God was silent. Later, he complains that God has gone too far. Note 1:13b, ***Why are you silent while the wicked swallow up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mselves?*** You can't help but love him for his honesty. But then, as we've seen previously, Habakkuk realizes that there's nothing he can do about what's happening. He's beginning to learn his lesson about the God whom he worships. 2:1, ***"I will stand at my watch... I will look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The Lord graciously answers Habakkuk. His message to him and to us is in 2:4,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Amidst all of his troubles the Lord encourages Habakkuk, and us, to trust. Then the Lord reveals the woes that will come upon the Babylonians. God will not tolerate their wickedness, drunkenness and idolatry.

Now, Habakkuk is humbled. We read in 2:20, ***"But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let all the earth be silent before him."***

그의 첫번째 불평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불평합니다. 1:13 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은 그의 정직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음, 우리가 전에 보았듯이, 하박국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경배하는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2: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세지는 2:4 절에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시련을 거쳐갈 동안 하나님은 하박국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용기를 북돋고 계십니다. 그런다음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다가올 비운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과 술취함과 우상숭배를 참으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겸손해졌습니다. 우리는 2:20 절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In chapter 3 Habakkuk is at worship. This chapter records his prayer to the Lord. In 3:2 he begins with a prayer for revival. He recalls the great works of God. ***I stand in awe of your deeds, O LORD. Renew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And now we see that his way of thinking has changed. No longer does he cry out for justice. He now pleads for mercy in the face of God's anger against the Babylonians. ***In wrath remember mercy.***

In 3:3-15 Habakkuk continues to teach us about prayer and worship. Facing disaster through the coming of the Babylonians, he reviews how God rescued His people in the past. In particular, he remembers their exodus from Egypt.

Briefly, recall why Israel had gone to Egypt. We read in Genesis 15 how God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At that time God said that Abraham's descendants would spend a long time in another country. 15:13, ***They will be enslaved and mistreated four hundred years.*** He also promised that they

would leave that land (in the Exodus from Egypt) with great possessions (15:14). It is this exodus that Habakkuk recalls. 3:3, **God came from Teman, the Holy One from Mount Paran**. God does not come from heaven, but from the earth, **from Teman and Mount Paran**. These two places trace the steps God took to lead Israel from Mt. Sinai, through Edom, into the Land of Promise, Canaan (Palestine).

3장에서는 하박국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 3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3:2 절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회상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행위에 놀랐나이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정의를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3-15 절에서 계속하여 하박국은 우리에게 기도와 예배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과거에 그의 백성을 구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그는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기억합니다.

짧게나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게 되었는지를 되짚어봅시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는지 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5:13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리니, 사백년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게 되리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15:14). 하박국이 회상해 본 것이 이 출애굽입니다. 3:3 절, “하나님이 테만에서부터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테만과 바란 산에서 왔습니다. 이 두 장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 산에서 이동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을 따라가보게 합니다.

At Sinai, God revealed His glory. There, Israel had been told that they must take on God’s character and be holy (Leviticus 11:44). God had revealed His glory at Sinai, yet not fully. Sinful men and women cannot see all of God’s glory and live. Habakkuk 3:4, **His splendour was like the sunrise; rays flashed from his hand, where his power was hidden**. Habakkuk refers to God as **the Holy One**. As **the Holy One**, God cannot tolerate evil. God’s power was seen in the plagues He produced in Egypt. 3:5, **Plague went before him; pestilence followed his steps**.

And so we read in Hebrews 12:29, **Our “God is a consuming fire.”** Now, Habakkuk sees God’s holiness first revealed in judgment against Judah. Secondly, he sees God’s holiness in striking down the Babylonians.

Now that the Lord has arrived, Habakkuk meditates on the effect of His glory. 3:6, **He [God] stood, and shook the earth; he looked, and made the nations tremble. The ancient mountains crumbled and the age-old hills collapsed. His ways are eternal**. One commentator writes, ‘When God arrives on the scene and makes His presence felt, not only people, but mountains shake, as though smashed by a giant sledgehammer.’

These images used by Habakkuk come to their fullness in the new covenant era. In 2 Peter 3:10 we read about the return of Christ and the events of that great Day.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will be laid bare**. On that Day, all the nations will tremble.

Then, Habakkuk sees two dwelling places which illustrate the effect God’s coming will have on the nations. 3:7, **I saw the tents of Cushan in distress, the dwellings of Midian in anguish**. Israel’s past experience with these two nations (or tribes) saw them frustrating Israel’s entry into Canaan.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져야 한다고 듣습니다 (레위기 11:44).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완전히 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많은 남성과 여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존재의 전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3 4). 하박국은 하나님을 거룩한 존재로 언급했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악을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이집트에 그가 보낸 역병에서도 드러납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3 5). 그리고 또 우리는 히브리서 12 19 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도다”라고 읽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먼저 유다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두번째로 그는 바벨론을 몰락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착하셨고, 하박국은 그의 영광의 영향력을 목상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3 6). 한 주석가는 ‘하나님이 어떤 장면에 등장하면 그의 존재감은 사람만이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도끼가 강타한것과 같이 산들이 흔들리게 된다’가 썼습니다.

하박국이 사용했던 이 비유는 새 언약의 시대에 완성을 이룹니다. 베드로후서 3 10 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위대한 날의 사건들에 관해 읽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 모든 열국들은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음 하박국은 하나님의 오심이 열국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볼수있었던 두 사를 보여줍니다. 3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 두 종족이 겪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경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어렵게 만들었었죠.

In 3:8 Habakkuk speaks once more about God’s wrath. These verses (3:8-15) are full of His divine displeasure. Three words are used to describe this displeasure: *wrath... anger... and rage*.

The first part of 3:8 consists of two almost identical questions. They are rhetorical, for they are not answered. *Were you angry with the rivers, O LORD? Was your wrath against the streams?*

God would not be angry with nature. However, God did part the waters of the Red Sea for Israel to cross. Those same waters then closed over the Egyptians who’d enslaved Israel. Later, God parted the Jordan River so that Israel could enter the Promised Land.

The imagery is of God as a victorious Warrior, riding out against His foes. 3:8b, 9, 15, *Did you rage against the sea when you rode out with your horses and your victorious chariots? You uncovered your bow, you called for many arrows... You trampled the sea with your horses, churning the great waters.*

Again the picture that Habakkuk paints is of the Exodus. This picture of God’s future act of judgment includes His triumph over Pharaoh at the crossing of the Red Sea.

Habakkuk and all Israel know that their God can also fight for them through His creation. The stopping of the Jordan River, the safe crossing through the Red Sea were not natural events. God’s creation was fighting for Israel.

In 3:10, 11a Habakkuk recalls how three parts of God’s creation have responded to God. *The mountains saw you and writhed. Torrents of water swept by; the deep roared and lifted its waves on high. Sun and moon stood still in the heavens.* These verses recall God’s mighty acts on behalf of His people. Mount Sinai *trembled violently* (Exodus 19:18) at the presence of the Lord. Later, God revealed Himself in a storm. The sun and the moon stood still while Joshua fought the Amorites (Joshua 10:12-14). One writer notes: ‘History has become a series of divine actions, the purpose of which cannot be doubted.’

Habakkuk 3:12-15 reveals God’s victory. His divine power wasn’t just to terrify the world, but to deliver His people. That has always been God’s purpose. Note 3:13, *You came out to deliver your people, to save your anointed one. You crushed the leader of the land of wickedness, you stripped him from head to foot.*

Habakkuk has reviewed God’s saving acts. The pattern of the past is now the promise of the future. This section (3:12-15) ends with another allusion to the Red Sea crossing. 3:15, *You trampled the sea with your horses, churning the great waters.*

Habakkuk’s faith is strengthened in the face of his people turning away from God; the coming Babylonian exile; and the knowledge that God saves. God delivers. And so Habakkuk doesn’t just dwell in the past. Instead, he relives it. For, he now sees God doing in his own day what God alone can do.

The God whom we worship is the same One whom Habakkuk worshipped. His promises are yes to us in Christ (2 Corinthians 1:20). Our God makes promises and keeps them. God is faithful.

하박국은 3 8 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에는 (3 8-15) 하나님의 신성한 불쾌함이 가득 합니다. 세개의 단어가 이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는데요 진노. 화 그리고 분노 입니다. 3 8 절의 첫부분은 두개의 거의 흡사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답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웅변술을 사용한 것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3 8 9 15).

하박국이 다시 그린 그림은 출애굽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의 행위에 관한 그림은 홍해를 건널때 파라오에 대한 그의 승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가 창조한 것을 통해 그들을 위해 싸우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의 멈춤, 홍해의 안전한 건넘은 자연스러운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3 10 11 절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물의 세가지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시내 산이 여호와 앞에서 크게 진동하였다(출 19:18) 고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폭풍속에 스스로를 드러내셨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동안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다(여호수아 10 12-14) 고 합니다. 한 저자는 “역사란 일련된 하나님의 행동으로 되어졌고, 그의 행위의 목적은 의심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하박국 3 12-15 절에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의 신성한 권력은 세상을 단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3 13).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되집어봅니다. 과거의 반복된 방식은 이제 미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3 12-15)은 홍해를 건넌 또 하나의 그림으로 마무리 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3 15).

하박국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생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겪으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단지 과거에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과거를 놓아 버렸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홀로만이 하실수 있는 일들을, 그의 때에, 행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하박국이 섬겼던 바로 같은 분이십니다. 그의 약속은 예수안에서 우리에게 예(고후 1:20)가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There are many promises to us in Scripture. Here is one from the lips of the Lord Jesus. John 14:1-3,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There are two final questions for us today. When the Lord Jesus returns, who can stand on that great Day of God’s Wrath? No one will be able to resist His power on that day (Psalm 110:5). His Anointed One (the Lord Jesus) has the authority to break any nation that rebels against Him (Psalm 2:8, 9; 1 Corinthians 15:24). One day, all of His enemies will be put under His feet (1 Corinthians 15:25).

The second question is more personal. Will you be able to stand before the Lord Jesus Christ? How is your faith? I hope that you have seen how Habakkuk has grown in his faith. It’s not just that he has more faith, his faith is now mature. He has moved from complaint onwards to praise and worship. He knows that God will fight for His people. If he lived today his prayer would be far deeper than the children’s prayer I once learned: *Gentle Jesus, meek and mild, look upon a little child...* It’s not a bad prayer, but it only gives us half the story. For, the Jesus we worship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Revelation 17:14). There is no other king in the Church.

Louis XIV of France wanted to be remembered as the greatest king ever. He required that at his funeral only one candle be lit and that on his coffin. One preacher, however, could have made Louis feel dissatisfied. When that preacher got up to speak, he walked over to the casket and snuffed out the light. He then commenced his message, saying, ‘Only God is great. Only God is great.’

Revelation 19:11-16 is all about King Jesus. *I saw heaven standing open and there before me was a white horse, whose rider is called Faithful and True. With justice he judges and makes war. His eyes are like blazing fire, and on his head are many crowns... and his name is the Word of God. The armies of heaven were following him, riding on white horses and dress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Out of his mouth comes a sharp sword with which to strike down the nations. “He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re.” He treads the winepress of the fury of the wrath of God Almighty.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he has this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입을 통한 한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미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한복음 14 1-3). 오늘 여러분을 위한 두가지 최종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실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위대한 날을 견딜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의 권능을 그날에 견딜수 없습니다(시편 110-5). 그의 기름부은받은 자(예수님)은 그에 대항해 거역한 어떤 족속도 무너뜨릴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시편 28 9 고전 15 24). 어느날 그의 모든 적들은 그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고전 15 25).

두번째 질문은 보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설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박국이가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갔던 것을 눈여겨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단지 더한 믿음을 가진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성숙해 갔습니다. 그는 불평에서 찬양과 예배로 계속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오늘날 살고 있었다면, 그의 기도는 제가 옛날에 배웠던 어린아이의 기도보다는 더 깊었을 것입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순하고 온화한 이 어린 아이를 바라볼때... 이것이 좋지않은 기도는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반쪽의 이야기만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계시록 17: 14).

All of God’s promises and His mighty acts come together in the Lord Jesus Christ. In Him we have nothing to fear.

You may wonder why I question the idea that we can ask God for justice. After all, God is just. Justice is essential to His character. But God’s justice is demonstrated at the cross. For there, in His death on the cross, the Lord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sin. God’s justice was satisfied. And His love for us in revealed in giving up His One and Only Son for our sakes. At the cross, God’s love and justice meet. Romans 5:8,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When you and I plead with God for His mercy we know that we really deserve His justice. We deserve spiritual death, to be separated from Him for all eternity. You must make a decision. Do you want God’s justice, or His mercy? Choose mercy. Come to Christ in repentance and faith. Turn from sin and trust that Christ has received the justice that you and I deserve. Find your hope, your peace, forgiveness of sin and eternal life i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we read in 1 Peter 1:3,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Amen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권능의 행위는 예수님 안에서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제가 정의를 위한 우리의 요구에 대한 생각에 물음표를 던지는지 궁금해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정의는 그의 성품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유일한 아들을 바침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난것입니다. 로마서 5: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때, 우리는 우리가 그의 정의를 받아 마땅하다는것을 압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 죽음을 맞는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의 자비를 원하십니까?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정의를 다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속에서 여러분의 소망과 평강, 죄의 용서와 영생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베드로전서 1:3절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었도다". 아멘